



HD현대

HD HYUNDAI
MAGAZINE

2026
SUMMER

HD현대

2026 SUMMER / VOL. 09

HD현대



CONTENTS



COVER STORY

울산 동구의 여름 풍경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함께 호흡하는 이곳에서, 오늘도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의 다채로운 이야기 세상 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D현대 여름호

발행일 2026년 7월 13일(월)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HD MESSAGE

PROLOGUE

06 인공지능(AI)의 시대,
HD현대의 길을 찾다

HD INSIDE

EVENT

16 현장스케치
· HD현대, 포시도니아(Posidonia) 2026
· HD현대일렉트릭, IEEE PES T&D 2026
· HD현대오일뱅크, 일일주점 행사

STORY

22 HD 돌보기
· 화채 드세오(Hwachae de CEO)
· 콜비즈(Cool-Biz)

24 HD HYUNDAI NEWS

28 HD業데이트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

PEOPLE

30 현장을 가다
HD현대일렉트릭 청주 배전캠퍼스
배전솔루션부 생산기술과

34 오피스 인터뷰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실



HD CULTURE

SOCIAL

38 미라클 HD

40 사랑을 나눕시다

42 HD SNS 픽
· 바다의 인도자 '터그보트'
· 배전의 미래가 청주에 섰다
· 팀원들이 직접 뛰고 연기한다, 'HD팀터뷰'

46 우리네 이웃
· 울산 HD FC
· HD아트센터

INSIGHT

50 로컬 재발견
투명 바다가 펼쳐지는 여름 삼척

54 건강 칼럼
건강한 여름나기 '냉방병'

56 마음 컨설팅
마음을 치유하는 여름, 외상 후 성장 이야기

58 트렌드 코리아
제로클릭: AI가 대신 내려주는 결정

59 사우 참여마당

HD

MESSAGE

AI로 다시 쓰이는 산업의 미래,
HD현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갑니다.

인공지능^{AI}의 시대, HD현대의 길을 찾다

조선·해양 부문

AI, 조선업 생산계획 시스템의 진화

숙련자의 경험에서 AI 에이전트까지

선박 생산계획은 제조업 중에서도 매우 복잡한 분야다. 설계 변경 사항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블록 조립부터 시운전까지 공정 간 작업 순서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여기에 크레인과 트랜스포터, 작업 공간, 자재 수급, 외주 물량, 글로벌 수요 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얹혀있다.

이처럼 복잡한 환경 속에서 조선업 생산계획 시스템은 단순한 일정 관리 도구를 넘어, 여러 생산 제약 조건을 함께 고려하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생산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생산 현장의 문제점과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생산 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숙련자의 경험과 규칙을 활용하는 방식(휴리스틱, Heuristics) △여러 대안을 반복해서 비교하며 좋은 답을 찾는 방식(메타 휴리스틱) △수학적 계산을 통해 최적의 답을 찾는 방식(수리계획법)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판단하는 방식(강화학습 기반 에이전트)으로 구분된다.

인공지능(AI)은 이제 선택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AI를 통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고 품질과 생산성의 한계를 다시 쓰는 지금, HD현대 역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HD현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자.



최적의 방법론 통한 솔루션 제시

먼저 '휴리스틱 기반 계획'은 쉽게 말해 숙련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이 순서로 작업 투입하는 것이 좋다'거나 '특정 공정에는 이 정도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식의 현장 경험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중일정 부하 평균화'처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조하며 빠른 계산이 필요한 계획 시스템에 적절하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는 항상 단순한 규칙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가능한 선택지가 많아 여러 대안을 비교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경우 '메타 휴리스틱' 방법을 적용한다. 조선소처럼 가능한 일정 조합이 너무 많아 모든 경우를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대안을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해 가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대조립/선행도장/PE장 블록 배치 시스템'처럼 작업 공간, 공정 순서 등 제약 조건이 복잡한 분야에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에이전트 기반 강화학습'이 주목받고 있다. HD현대삼호와 함께 개발 중인 '자율 생산계획 시스템'에서는 여러 AI에이전트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선별 에이전트'는 당일 어떤 블록을 먼저 투입할지 선택하고, '배량 에이전트'는 어디에서 작업을 수행할지 판단하며, '배치 에이전트'는 할당된 정반 내에서 최적의 배치 위치를 지정한다. 이렇게 각 AI가 역할을 나눠 판단하면서, 납기를 지키고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나은 계획을 스스로 학습해 나간다.

경험 중심에서 자율 의사결정으로

최근 조선소 생산계획 시스템은 단순히 더 좋은 알고리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정적 계획에서 동적 대

응으로, 개인의 판단에서 조직 전체의 지능형 의사결정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전체 생산 흐름에 가장 유리한가'를 스스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디지털제조연구실은 생산 계획·운영의 다양한 방법론을 결합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제조 실행 시스템(MES), 고도화 생산계획·일정 시스템(APS) 및 디지털 트윈, 로봇 운영 플랫폼과 연결 가능한 실시간 의사결정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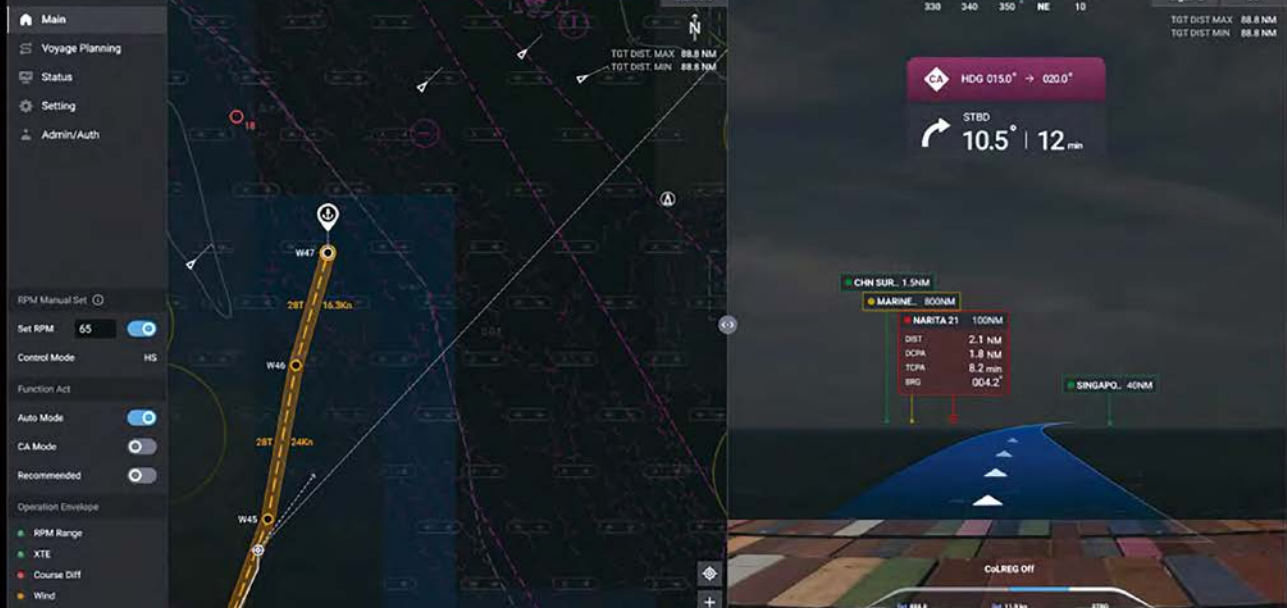
이를 통해 디지털 제조(DM) 기반 에이전트 AI와 퍼지컬 AI 환경에서 생산 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생산 계획·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조선소의 생산계획 시스템은 사람의 경험과 AI의 판단이 함께 어우러져, 일정을 작성하는 도구를 넘어 생산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실행 대안을 제안하는 디지털 제조 시대의 핵심 운영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Fleet Optimization Solution

OceanWise, a marine industry big data solution, predicts ship schedules with AI, minimizing port standby, cutting fuel use by 7%, and reducing air pollution.



조선·해양 부문

바다 위 AI 내비게이션, 오션와이즈



HD현대마린솔루션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의 최적 항로를 제시하는 탈탄소·경제 운항 솔루션 '오션와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장비 설치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 및 예측하며,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운항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핵심 기능은 CII(탄소집약도지수) 실시간 관리·예측, AI 기반 최적 항로 추천, 선단 관리 등이다. HD현대오일뱅크와의 실증에서는 총 13개 구간, 10만 6천km 항해를 통해 평균 5.3%의 연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연간 1만 톤의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1척 기준 약 3억 5천만 원의 비용 절감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오션와이즈의 핵심 기술인 '항로 최적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선박 운항 효율과 탄소 배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AI 기반 친환경 운항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션와이즈는 선박의 위치, 속도, 연료 소모량, 해류, 풍속 등 운항 중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학습한다. 운항이 반복될수록 더 스마트해지고 더 정밀한 최적화가 가능해지는 자기 학습형 AI 플랫폼인 셈이다.또 오션와이즈의 진화를 가속하는 것은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민간 기상 정보 기업인 일본 웨더뉴스(Weathernews, WNI)와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웨더뉴스가 40년 이상 축적한 안전항로 서비스와 정교한 고해상도 기상정보 데이터에 HD현대마린솔루션의 AI 기반 선박 성능 모델링 및 항로 최적화 기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해양 부문

'하이나스 컨트롤', 자율운항 시장 선도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자회사 아비커스(Avikus)가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비커스는 최근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자율운항 시스템 '하이나스 컨트롤(HiNAS Control)'에 대한 형식승인(Type Approval, TA)을 획득했다. 이번 형식승인을 받은 '하이나스 컨트롤'은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통합한 자율운항 시스템으로, 주변 선박과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운항 상황을 판단,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솔루션이다. 특정 선박이나 프로젝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선박에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산형 자율운항 시스템이 국제 공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하이나스 컨트롤은 별도의 추가 검증 없이 설치가 가능해져 적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글로벌 선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아비커스는 노르웨이선급과 협력해 자율운항 시스템의 안전 요건과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야간 및 악천후 등 다양한 운항 환경에서의 비전 센싱·충돌 회피 기술 등을 검증 받았다.

이번에 마련된 검증 체계와 평가 기준은 자율운항 국제표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향후 관련 기준의 주요 참고 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비감제 코드(MASS Code) 논의와 맞물려, 향후 세부 기술 기준 마련에도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부문

데이터와 AI,
 흩어진
 Value Chain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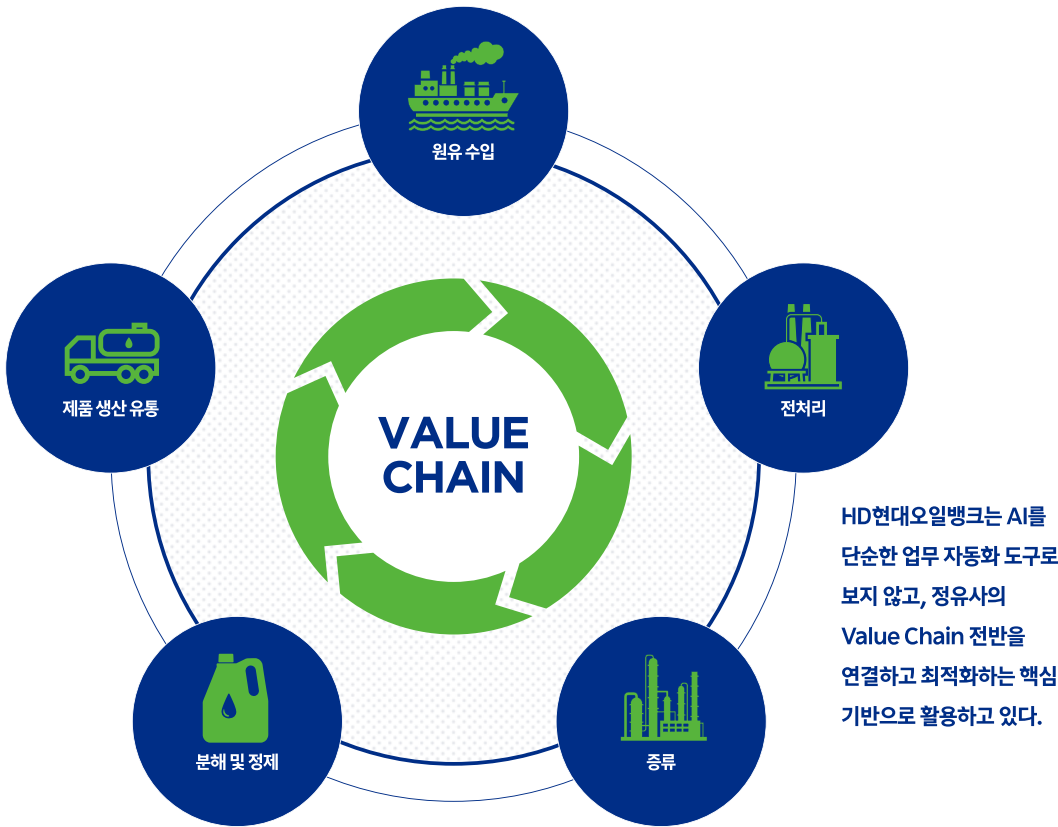
하나로 연결된 흐름, 달라지는 운영 방식

정유 산업은 원료 도입부터 생산, 공정 운전,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판단이 맞물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수익성과 운영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AI를 단순한 업무 자동화 도구로 보지 않고, 정유사의 Value Chain 전반을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유 선택과 도입, 생산계획, 제품 운영, 물류와 수급, 공정 운전애 이르기까지 각 업무를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BAO(Business Analytics & Optimization)팀이 추진하는 VCIO(Value Chain Integration & Optimization) 프로젝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기존에는 부서별로 데이터와 판단 기준이 분산되어 있어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유기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VCIO는 Value Chain 전반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 통합적 판단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흐름 최적화라는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 구조화와 AI 기반 의사결정 고도화

이러한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데이터의 구조화와 활용 방식에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팔란티어의 온톨로지(Ontology) 데이터를 통해 여러 부서와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실제 업무 맥락에 맞게 연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는 분석, 시뮬레이션, 최적화의 기반이 되어 실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원료 도입 단계에서는 어떤 원유 조합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생산계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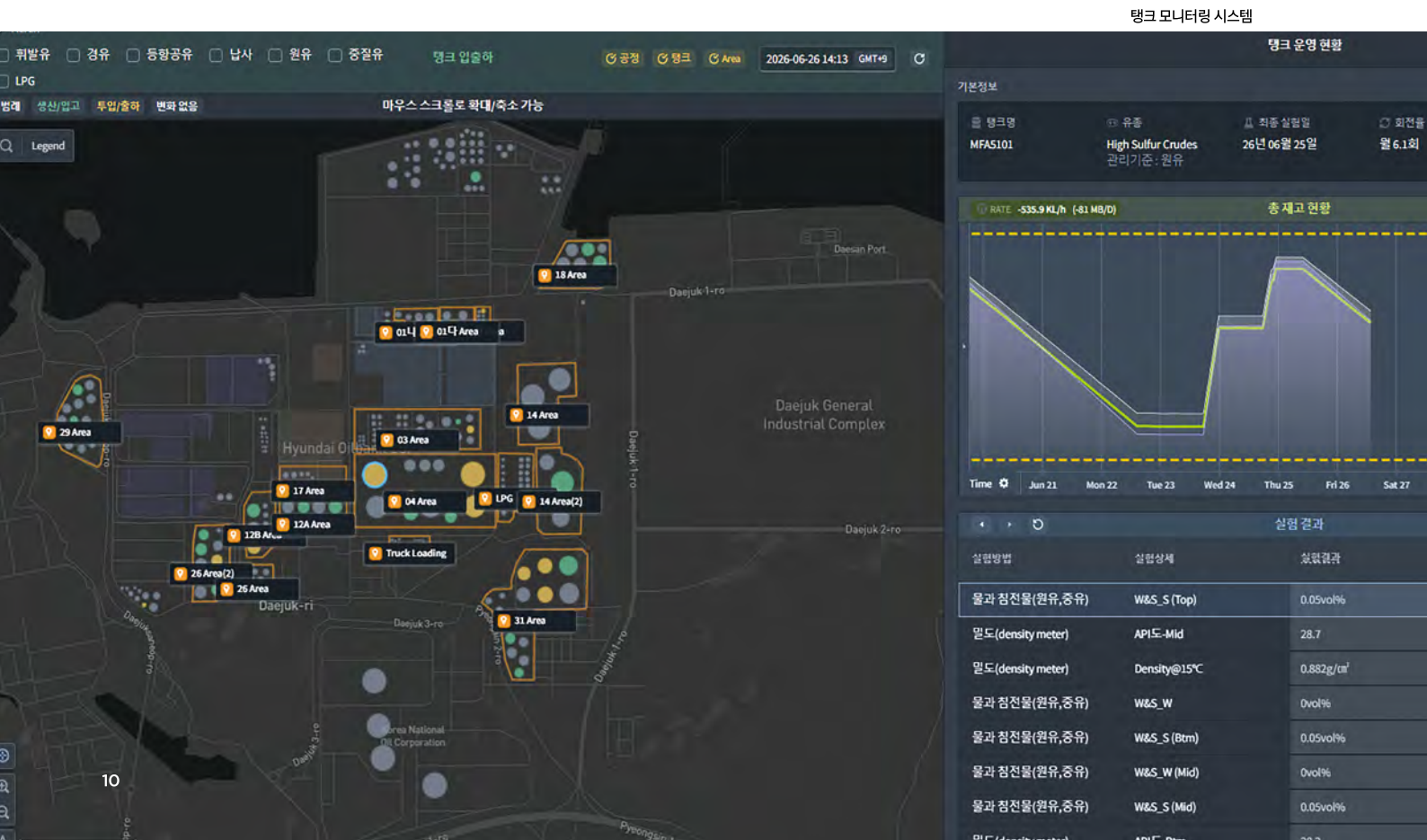
또한 물류와 수급, 공정 운전 단계에서도 각 결정이 전체 Value Chain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정유 산업의 운영 철학 자체를 바꾸는 과정에 가깝다. 부문별 효율을 강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과 실행이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결국 AI의 역할은 사람의 판단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넓은 관점과 더 정교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현업의 전문성과 결합된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데이터가 현장으로 연결되고, 현장의 판단이 다시 데이터로 축적되는 구조 속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정유 산업에 특화된 AI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건설기계 부문

스마트 안전 기술부터 무인 자율 굴착기까지



HD현대사이트솔루션, 무인 자율 굴착기 첫 인도

최근 AI 기술이 건설기계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며 현장 작업 방식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무인 자율화 기술은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스마트 건설 현장 구현을 앞당기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최근 스위스 건설 현장에서 무인 자율 굴착기를 투입했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건설장비 자율화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투입된 무인 자율 굴착기는 유럽 대형 건설그룹 키바그(KIBAG)의 스위스 투겐 지역 건설 프로젝트에서 깊이 3m, 폭 12m, 길이 1km 규모의 토목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장비에는 HD건설기계의 22톤급 굴착기를 기반으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스마트 굴착기 플랫폼과 그라비스 로보틱스(Gravis Rootics)의 AI 자율화 기술을 결합한 '리얼 엑스(Real-X)' 솔루션이 적용됐다.

이 장비는 작업자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유인 운전 대비 약 120% 수준의 평균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건설기계 무인 자동화 솔루션 '콘셉트 엑스(Concept-X)' 시연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글로벌 전시에서 '리얼 엑스' 장비 시연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선보이며 무인 자율화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HD건설기계, AI 스마트 안전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

AI 기술은 생산성뿐 아니라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HD건설기계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솔루션 'E-STOP'은 장비에 장착된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 작업 반경 내 사람과 사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장비 스스로 제동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딥러닝 인식 기술을 통해 작업 구역 내 사람만 정확히 구분하며, 설정된 거리에 따라 감속과 정지 단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현장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E-STOP'은 최근 이탈리아 무역박람회 베로나피에레(Veronafiere)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사모테르 기술 혁신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9월에는 프랑스 노동부 산하의 건설업 안전예방협회(OPPBTP)가 주관한 센강 운하 프로젝트에서 시연을 선보이며 유럽 건설사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기계는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작업하고 위험을 인지하며, 단순한 작업 도구를 넘어 판단하고 수행하는 '지능형 장비'로 진화하고 있다. 자율화 기술과 스마트 안전 기술이 결합되면서, 미래의 건설기계는 생산성과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HD INSIDE

현장의 다양한 순간을 통해
HD현대의 오늘과 내일이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16

HD 돋보기

22

HD HYUNDAI NEWS

24

HD業데이트

28

현장을 가다

30

오피스 인터뷰

34

HD현대, 글로벌 해양 시장에서 기술력 입증

조선·해양 산업의 대표 국제 전시회인 '포시도니아(Posidonia) 2026'이 지난 6월 1일(월)부터 닷새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 HD현대는 글로벌 고객과 접점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 기업으로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한국 국가관과 그룹 전시관 동시 운영

HD현대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 국가관과 그룹 전시관을 동시에 운영하며, 친환경·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 선박을 선보이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

HD현대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과 함께 한국 국가관을 조성해 세계 시장에 'K-조선'의 경쟁력을 선보였다.

국가관에서 HD현대중공업은 1만 8천 입방미터(m³)급 LNG병커링 선을, HD현대삼호는 풍력 보조 추진 장치를 적용한 17만 4천 입방미터(m³)급 LNG운반선 모델을 선보이며, 친환경 연료 기술과 고효율 설계 역량을 드러냈다. 특히 HD현대는 별도로 마련된 그룹 전시관에서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마린솔루션 등 3개사가

함께 참여해 그룹 차원의 통합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메탄올과 암모니아를 넘어 수소까지 연료로 활용하는 '힘센(HIMSEN)엔진'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선내 모터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는 지능형 모터 제어 장치 'IMCU(Intelligent Motor Control Unit)', 전기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예지보전을 지원하는 'Hi-PDS(Hyundai intelligent Preventive Diagnosis System)' 그리고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2MW급 축발전기'를 전시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솔루션을 적용한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컨버전(Conversion) 모델'을 전시하며 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줬다.



미래 선박 기술 인증·협력 성과 이어져

HD현대는 박람회 기간 동안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을 잇달아 선보이며 글로벌 선급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은 영국 선급(LR)으로부터 '용융염 원자로(MSR)를 적용한 자동차운반선(PCTC) 개념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 선박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현대글로벌비스, 지마린서비스,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으며, HD현대는 선박 개념설계와 기술 검토를 담당한다.

실제 SMR 추진 선박은 탄소 배출 없이 장거리 고속 운항이 가능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HD현대는 컨테이너선에 이어 자동차운반선까지 개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LP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타입-B 탱크 적용 LPG 운반선 등 다양한 기술 역시 글로벌 선급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스카라망가스 조선소와 해군·해경 함정 및 무인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아비커스 역시 HJ중공업과 자율 운항 솔루션 하이나스 컨트롤(HiNAS Control)의 표준 적용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도 확대했다.

Posidonia  Ποσειδώνια
The International Shipping Exhibition



차세대 전력 기술 총집결, 북미 시장을 사로잡다

지난 5월 4일(월)부터 7일(목)까지 나흘간,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전력기기 전시회인 'IEEE PES T&D 2026'이 성황리에 열렸다. 전 세계 약 900개 에너지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전력 시장을 겨냥한 핵심 제품과 기술 로드맵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처음 공개된 362kV DTCB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유독 발길을 붙잡은 제품이 있었다. 362kV급 데드뱅크형 초고압 차단기, 일명 DTCB. 북미 현지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으로, HD현대일렉트릭이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신제품이다.

이 제품은 북미 지역의 다양한 설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진 성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탱크 외함 접지 구조를 적용해 유지 보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공간 효율을 높인 설계를 통해 설치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여기에 SF₆-Free GIS(육불화황 대체 가스절연개폐장치), 직류(DC) 기반 차단기 등 송전부터 배전까지 전 라인업을 아우르는 '2030 로드맵'을 공유하며,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 인프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파트너임을 시장에 각인시켰다.

초고압 변압기 1천730억 원 수주 쾌거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전시 기간 중 미국 중부 대형 유틸리티 회사와 총 1천730억 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수주를 통해 회사는 미국 중남부 송전망 구축의 핵심 사업인 'SPP(Southwest Power Pool) 장기 송전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하게 됐다. SPP 권역은 미국 내 최대 풍력 발전 밀집지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송전망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북미 초고압 송전 설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 프로젝트 수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을 넘어, 마음을 나누다

전시장 밖에서도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HD현대일렉트릭의 첫 번째 '고객 감사의 밤(Customer Appreciation Night)'이 열린 것. CEO 축하, 럭키드로우 이벤트, 임직원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 행사에는 주요 고객 및 파트너 100여 명이 초청돼 따뜻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제품과 기술을 넘어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다지겠다는 HD현대일렉트릭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자리였다.



웃음꽃 활짝 핀 '여름밤의 추억'

초여름 문턱, 해가 지자 대산공장 사택 주차장에는 자동차 대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정기보수를 무사히 마무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일일주점 행사장은 점점 활기를 띠었다.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머물렀던 그날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다양한 이벤트로 소중한 추억 쌓아

이날 HD현대오일뱅크 생산지원팀은 임직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해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두더지 잡기, 다트, 스틱 잡기 게임에 참여하면 결과에 따라 코인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해 상품 뽑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숙취해소제와 사탕 같은 소소한 선물부터 쌀과 같은 실용적인 상품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게임에 몰입한 임직원들의 진지한 표정과, 결과에 따라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는 행사장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됐다. 정기보수라는 큰 일정을 안전하게 마친 뒤 열린 이번 일일주점은, 구성원들이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며 재충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확인한 저녁. 대산공장의 따뜻한 에너지는 그렇게 또 하나의 좋은 기억으로 쌓였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저녁시간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5월 28일(목) 대산공장 정기보수 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일일주점' 행사를 마련했다. 업무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음식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준비돼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가장 가격이 높은 메뉴인 원할머니 세트와 전기 통닭구이가 5천 원에 판매돼, 누구나 가볍게 둘러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덕분에 퇴근 후 삼삼오오 모여든 직원들은 한층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실제 행사는 오후 5시에 시작됐지만, 미리 음식을 주문하려는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질 만큼 기대감이 높았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팀원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동기나 선배와 오랜만에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특히 사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아,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식사를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일주점은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일터와 일상, 그리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소통의 장이 됐다.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임직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눴다.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고 서로를 격려하는 정다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과일화채 드세요~” 시원한 화채로 무더위 식힌다

HD현대중공업의 특별한 간식차가 생산 현장을 곳곳을 누비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맛과 영양분을 모두 사로잡은 과일화채를 싣고 와 사우들의 반응이 좋다.



9월 초까지 총 44회 간식차 운영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리는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응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지난 6월 12일(금)부터 오는 9월 4일(금)까지 총 44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시원한 과일화채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화채 드세요(Hwachae de CEO)’를 운영하고 있다.

‘화채 드세요’는 ‘~의, ~로부터’라는 뜻의 불어 de를 사용해 ‘CEO가 준비한 화채’와 ‘화채 드세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간식차는 전 생산 현장 44개소를 돌며 회당 1천 인분씩 총 4만 4천개의 화채를 제공한다. 행사 둘째 날부터 HD현대중공업 경영진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화채를 나눠주며, 무더위 속 수고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여름철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제빙기 및 스포쿨러 등을 가동함은 물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휴게시간을 20분으로 늘리는 등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출근길 반바지 OK”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소비 줄인다

쿨비즈(Cool-Biz)는 ‘시원하다(Cool)’와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여름철 유연한 복장 문화를 통해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혹서기 출퇴근, 더 가볍고 편하게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쿨비즈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부터는 정식 제도로 전 환해 운영에 들어갔다.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사내 협력사, 선주사, 외부 방문객 등 회사로 출입하는 전 인원 대상으로 여름철 출퇴근 시간에는 반바지, 샌들 등 가벼운 복장이 허용된다. 본인 판단하에 TPO(Time·Place·Occasion) 및 안전 기준에 맞는 복장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사차 출퇴근제·선택 근로제 사용자와 반차·반반차 사용 시에도 쿨비즈 착용이 가능해져 사우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이 제도는 임직원 근무 환경 개선 및 출퇴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시간(08~17시)에는 근무복 착용이 필수며, 중식 및 휴게시간에도 쿨비즈는 허용되지 않는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은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 상승 여파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용 절감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HD HYUNDAI NEWS

[HD현대삼호]

세계 최초 알루미늄 케이블 적용 선박 인도



HD현대삼호가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케이블을 적용한 선박을 인도하며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HD현대삼호는 지난 5월 26일(화) 영암 본사에서 HMM, 한국선급(KR), 극동전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알루미늄 케이블 세계 최초 적용 성공 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치엠엠 제이드'(HMM JADE)로 명명된 이 선박은 극동전선이 개발한 신기술인 알루미늄 케이블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케이블에 쓰이던 구리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에 알루미늄을 적용함으로써, 30% 수준의 원가 절감은 물론 11톤 규모의 선박 경량화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23년 한국선급 개념 승인 획득을 시작으로 기자재 업체 협의, HMM 선주사 적용 제안, 현장 포설 점검, 작업자 설명회 실시 및 해상 시운전까지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HD현대삼호는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해 성과를 낸 데 이어,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회사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29일(금) 인도 서명을 마친 '에이치엠엠 제이드호'는 곧바로 첫 기항지를 향해 출항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

美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 시장 진출



HD현대마린솔루션이 지난 5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Aperion Energy Group)와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AEG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 내 전력용 엔진 33기에 대한 장기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AEG와 20MW급 힘센(HiMSEN)엔진 기반 684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용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룹사가 엔진을 공급하고, HD현대마린솔루션이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밸류체인이 북미 시장에서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 엔진 공급을 넘어 '장기 유지·보수 계약(LTSA)'과 '운영·정비 계약(O&M)'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AM(After Market) 서비스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용 엔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호국보훈의 달 맞아 봉사·추모시설 건립 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9일(금)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과산호국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정기선 회장은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진행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이어 HD 현대의 자매결연 묘역인 25구역에서 잡초 제거와 비석 닦기 등 정화 활동을 통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국가보훈부와 HD건설기계 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 체결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이 진행했으며, HD현대 정기선 회장과 데시 달케 두카모(Dessie Dalkie Dukamo)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가 참석했다.

HD건설기계는 유엔 참전국 내 참전용사를 기리는 추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제공한다. 첫 해외참전기념시설은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에티오피아에 조성될 예정이다.

정기선 회장은 “두려움에 맞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었던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데 HD현대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美 힐스보로 프로젝트 … 태양광 모듈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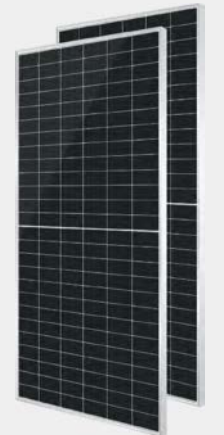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에너지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월 31일(화) 미국 Hillsboro Solar Project LLC와 약 1천 278억원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의 약 30.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 확대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측면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힐스보로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힐 카운티(Hill County)에 조성되는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2027년 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발전소 완공 시 연간 약 476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미국 기준 약 4만 6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연간 약 17만 8천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돼 글로벌 탄소중립 및 RE100 확대 흐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효율 태양광 모듈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북미를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새 생명을 불어넣는 친환경 선박 개조 사업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바다 위를 오가는 선박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넷 제로(Net Zero)’ 목표 아래, 글로벌 해운 선사들은 운항 중인 선박을 친환경으로 ‘개조’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다.

더 깨끗한 바다를 향한 솔루션

HD현대마린솔루션 친환경솔루션부문은 ‘선박 친환경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설계부터 부품·장비 조달, 시공·설치, 시운전, 보증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책임지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기가스 탈황장치 등 1세대 친환경 개조에서 누적 1천 건 이상의 공사 실적을 쌓아왔으며, 현재는 LNG선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선박 개조 사업인 ‘가스 솔루션’과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탈탄소 솔루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LNG 재액화 설비 개조



노후 LNG선을 에너지 터미널로

FSRU·FSU 개조는 노후 LNG운반선을 활용하여 해상에서 LNG를 저장·기화해 육상에 공급하는 ‘떠다니는 LNG 터미널’ 전환 사업이다. 노후 선박을 폐선 및 해체하지 않고 새로운 용도로 재활용하는 만큼, 자원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친환경적 사업이고 필요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재배치가 가능해 에너지 수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기도 하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2025년 국내 최초 FSU 개조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 이어, FSRU 개조 첫 수주까지 달성하며 사업 기반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LNG 재액화 설비 개조는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자연 기화되는 가스(BOG)를 다시 액체 LNG로 되돌려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핵심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누적 11척의 수주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나가고 있다.



LNG 재액화 설비 개조

탄소 줄이는 다양한 개조 아이템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개조 아이템은 대규모 엔진 교체 없이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선주들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EPLO)’는 실제 운항 속도에 맞춰 엔진과 터보차저를 최적화해 연비를 개선하는 솔루션이다. 저비용·고효율의 강점으로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88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중연료(DF) 엔진 개조는 기존 디젤 엔진 선박을 LNG·메탄올·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전환하는 사업이다. IMO의 중기 조치 공식 채택 이후에는 시장이 더욱 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육상전원공급장치(AMP) △프로펠러 재개조 △공기 유회 장치(ALS) 등 선체와 추진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EPLO) 작업



EPLO를 통해 개조한 터보차저



육상 전원 공급 장치(AMP)



프로펠러 재개조

더 똑똑한 공장을 향한 끝없는 고민

HD현대일렉트릭 청주 배전캠퍼스
배전솔루션부 생산기술과

HD현대일렉트릭 청주 배전캠퍼스는 한층 더 스마트한 공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생산과 물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이 변화의 중심에는, 현장에서 해답을 만들어가는 배전솔루션부 생산기술과가 있다. 공장의 움직임을 설계하고 경쟁력을 완성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smart factory



생산 현장의 흐름을 설계하다

청주 배전캠퍼스 생산 현장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생산 라인에 자재가 투입 되는 순간부터 완제품이 출고되기까지, 수십 개의 공정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어진다. 그 중심에서 생산의 리듬을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배전솔루션부 생산기술과다.

2025년 말 준공된 청주 배전캠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과 물류가 하나로 연결된 스마트 제조 환경이다. 공정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면서 공장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인다. 생산기술과를 이끄는 박기억 책임은 현장에서 “예전보다 일하기 편해졌다”, “생산 흐름이 안정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변화의 성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생산기술과는 자동화 설비의 설계부터 구축 그리고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장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자율이동로봇(AMR)과 창고관리시스템(WMS) 기반의 물류 자동화 설비는 물론, 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금형 개발과 양산성 검증, 유지보수까지 담당한다.

이들의 하루는 전일 생산 실적과 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일로 시작된다.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며, 설비 이상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생산 라인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현장 작업자들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불편한 점이나 안전 개선 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것도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다.



데이터로 여는 생산 혁신의 미래

생산기술과 업무의 또 다른 핵심은 ‘데이터’다. 생산 실적과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공정의 비효율 요소를 찾아내고, 설비 정지 이력과 원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현장 이슈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단순히 문제를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통해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생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지향점이다. 현재 생산기술과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과제는 생산 라인과 물류 자동화 설비 간의 시스템 최적화다. AMR, WMS 기반 물류 흐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비 간 인터페이스를 정교하게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생산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보전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가 스스로 상태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자율 운영 환경, 무인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 늘어나는 설비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 설비와 공정, 데이터가 하나로 연결되어 스스로 최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 현장, 그것이 지금 생산기술과가 만들어가고 있는 공장의 모습이다.

협업으로 완성되는 스마트 생산 환경

청주 배전캠퍼스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이다. 생산기술과는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공정 개선이나 설비 도입과 같은 주요 과제에서도 연차와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나누며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자동화 설비와 물류 시스템이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각자의 전문 영역을 빠르게 공유하고 연결하는 협업 역량이 곧 설비 안정화의 속도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박 책임은 청주 배전캠퍼스 구축 과정에서도 이러한 협업 문화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생산기술과가 지향하는 방향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다. 사람과 설비, 그리고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완성형 스마트 공장. 그 목표를 향해 이들은 오늘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설비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Cooperation



차세대 연료를 현실로, 선박 에너지 시스템 혁신의 최전선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바다 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실은 친환경 연료와 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해양 산업의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Q.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실은 '바다 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넷 제로(Net Zero)' 목표에 대응해, 암모니아·수소 등 차세대 연료를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안전 시스템과 저장·운영 기술을 고도화하며, 실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유식 데이터센터 등 해상 인프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y energy system

Q.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현재 저희는 암모니아 안전 솔루션과 액화수소 저장 및 화물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부유식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운항 및 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암모니아 가스를 포집·처리하는 '암모니아 가스 처리 시스템(ARMS)'을 개발해, 글로벌 주요 선급 및 기국으로부터 기본인증(AIP)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액화수소운반선 화물창과 화물처리시스템(CHS) 개발을 통해 약 영하 253°C의 극저온 환경에서의 수소 저장 안정성과 효율 확보 기술 등을 고도화하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며 대형 액화수소운반선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축적된 열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부유식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연구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Q. 연구실 과제가 친환경 선박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은 실제 선박에 적용 가능한 '검증된 기술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연구실이 수행 중인 과제들은 이러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관련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와 수소는 유력한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안전성과 저장·공급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연구실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운영 기술과 안전성 평가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단계의 기술이 실제 선박 적용으로 이어지기 위해 다양한 실증 설비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의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기준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 정립 논의에도 참여하며 산업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HD현대가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에너지시스템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제 선박과 해양 시스템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상용화 수준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저희 연구실은 핵심 기술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HD현대가 미래 친환경 선박과 해양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HD CULTURE

일상과 삶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HD현대의 또 다른 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라클 HD	사랑을 나눕시다	HD SNS 픽	우리네 이웃		로컬 재발견	건강 칼럼	마음 컨설팅	트렌드 코리아	사우 참여마당
38	40	42	46		50	54	56	58	59

난치병 아동에게 기적을, 2026 '메이크어위시' 발대식 개최



HD현대1%나눔재단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이크어위시(Make-A-Wish)' 프로젝트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가며, 따뜻한 희망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메이크어위시'는 소원의 주인공인 '위시키드(소원 대상 아동)'와 이들의 꿈을 돕는 자원봉사자 '위시엔젤'이 한 팀이 되어 소원을 구체화하고, 최종적으로 '위시데이'에 그 소원을 현실로 실현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24일(수),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아산홀에서는 2026년 메이크어위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치열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뚫고 최종 선발된 대학생 위시엔젤 160명과 HD현대 임직원 위시엔젤 29명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위시엔젤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환아를 대할 때의 세심한 태도를 배웠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세션에서는 서먹함을 깨고 유대를 다졌으며, 위시엔젤 선서식을 통해 책임감을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팀별 회의를 진행하며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소원 실현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위시엔젤들은 위시키드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수차례 만나며, 아이가 가슴속에 품어온 소원을 실현 가능한 특별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인 '위시데이'에는 환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특별한 하루를 선물할 예정이다.

따뜻함을 굽다, HD현대중공업 빵 나눔 봉사 현장



HD현대중공업 직원들과 가족들이 직접 만든 빵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20일(토) 직원과 가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HD현대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빵을 직접 만들고 정성껏 포장한 뒤, 이웃들에게 전할 응원 메시지 카드도 함께 작성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가족이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제빵 봉사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 80명의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며, 완성된 빵은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200세대에 전달된다.

이번 활동은 HD현대1%나눔재단이 추진하는 '해피 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임직원 사회 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제안이 실제 나눔 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 동반성장지원부 서주완 책임매니저는 "가족과 함께 직접 만든 빵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모의 어려움 속에서도 씩씩하게 자라는 두 자매

정훈 씨(가명)는 두 딸을 사랑으로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훈 씨가 허리를 다치고 난 이후, 여느 가정처럼 평범했던 하루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덜 틈 없는 생활이지만 행복은 한가득

정훈 씨와 선희(가명) 씨는 지인들의 소개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생활해 온 부부에게 첫째 채린(가명, 2세), 둘째 채빈(가명, 1세)이 차례로 찾아왔다.

아빠 정훈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연년생 두 딸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선희 씨에게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자체가 매일매일 큰 도전이다. 지적장애에다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상담과 부모 교육,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육아와 집안일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 처음에는 요리가 어려웠지만, 직접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며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 특히 정훈 씨는 선희 씨가 해주는 서툰 음식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어린 두 딸의 밝은 웃음은 엄마 아빠의 미소로 번지며, 정훈 씨네 집에는 늘 행복이 가득했다.

잘 걸지도, 안아주지도 못하는 아빠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의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보행조차 쉽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 생겼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조차 힘들어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지만, 치료를 위해 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 속에서 정훈 씨는 통증을 견디며 배달 일을 이어가고 있다.

걸음을 절뚝이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울면 가장 먼저 품에 안아 달래주고, 몸이 아픈 날에도 육아를 함께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만, 건강 악화로 이전처럼 근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정훈 씨의 소득 및 정부 지원금 등으로 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저귀와 분유, 병원비 등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빠 정훈 씨의 건강 악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매달 채무상환과 기타 고정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네 가족들은 늘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린 자매는 부모의 어려움은 알지 못한 채, 늘 밝은 얼굴로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정훈 씨와 선희 씨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또래 아이들만큼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이 따라온다고.

하루 빨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채린이네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화면 너머 펼쳐지는 HD현대의 또 다른 이야기

HD현대 각 계열사 유튜브 채널에 다채로운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영상 속에는 현장의 생생한 순간과 새로운 시도가 함께 담겨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 VIDEO 01

바다의 인도자 '터그보트'



HD현대중공업 유튜브 채널에 '내부자들'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HD현대중공업 운항관제부 해상과 해상팀이다. 이들은 '바다의 인도자'로 불리는 '터그보트'를 운용하며 대형 선박의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도크에 있는 선박을 바다로 끌어내는 진수 작업부터 안벽 접안 지원, 시운전 에스코트, 항로 유도에 이르기까지 대형 선박의 모든 순간에는 터그보트가 함께 한다. 그렇다면 유독 작은 몸집을 가진 터그보트가 어떻게 대형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강력한 엔진 성능에 있다. 이 선박에는 HD현대중공업이 제작한 7천 96마력의 힘센 엔진(HiMSEN)이 탑재돼 강한 추진력을 확보했으며, 실제 국내 최고 수준의 마력을 갖춘 터그보트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길이 42m, 폭 13m의 선박에는 엔진룸과 브릿지, 선실 등 필요한 설비를 모두 갖춰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이번 콘텐츠는 도크 진수(Launching)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터그보트는 주수 이후 물 위로 떠오른 게이트를 이동시키고, 도크와 선박 사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내부로 진입한다. 대형 선박과 연결된 로프 하나와 무전기만으로 수십 배나 큰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작업이다. 때론 선박과 도크 사이 간격이 500mm에 불과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후 선박이 도크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면 선수 쪽 터그보트가 앞에서 이끌고 나머지 배들은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을 돕는다.



최종 접안 지점에 도착하면 가장 정밀한 작업이 이어진다. 이는 거대한 선박을 충격 없이 정확한 위치에 밀착시키는 과정으로,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이 모든 작업은 도크 마스터의 지휘 아래 진행되며, 해상팀과 선거팀 등은 무전기를 통해 전달되는 세밀한 지시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터그보트는 단순히 선박을 이동시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도크 진수, 접안, 시운전 등 후행 공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며, 거대한 선박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존재다. 작지만 강한 힘으로 바다를 이끄는 터그보트. 그들의 하루는 오늘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VIDEO 02

배전의 미래가 청주에 섰다



청주 배전캠퍼스
건축 스토리



HD현대일렉트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주 배전캠퍼스의 착공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영상을 공개했다. 단순 공장 소개를 넘어 HD현대일렉트릭이 그리는 미래 제조의 방향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급증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인프라의 판이 바뀌고 있다. 미주·유럽·중동을 중심으로 배전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지역마다 상이한 인증 기준과 5만여 종에 달하는 방대한 제품군을 사람의 손에만 의존한 기존 생산 방식으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충북 청주 센트럴 산업단지 내 약 2만5천평 규모로 조성된 배전캠퍼스는 건축 설계 초기부터 스마트 생산체계를 목표로 기획한 그린필드 프로젝트다. 자재 입고부터 생산·검사·출하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로 연결되며, 자율이동로봇(AMR)·수직 이송 시스템이 공장 내 물류를 담당한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고전압 시험과 외관 검사도 자동화해 현장 위험 요소와 휴먼 에러를 최소화했다.

운영 체계도 고도화했다. AI 기반 수요 예측과 연동된 'Single Plan'으로 영업 판매 계획과 생산 공급 계획이 통합되고, 생산·자재관리·물류시스템을 하나의 데이터 흐름으로 연결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했다.

중저압차단기를 시작으로, 청주 배전캠퍼스는 배전반, 배전변압기 등 모든 배전기기 제품과 부품 공급망이 집결하는 미래형 생산 거점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VIDEO 03

팀원들이 직접 뛰고 연기한다, 'HD팀터뷰'



세상에 똑같은
배는 없다



HD현대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인 'HD팀터뷰'가 등장했다. 'HD팀터뷰'는 정형화된 인터뷰에서 벗어나 요즘 유행하는 릴스 형식에서 착안, 2분 이내의 짧은 분량으로 팀 소속 실무자들이 직접 등장해 연기·내레이션을 통해 팀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딱딱한 설명 대신 재미있는 연출과 자세한 설명이 더해져 진정성과 재미까지 잡았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HD한국조선해양 EP사업부문이 등장한 1편은 조회수 6.3만회를 기록, "팀 분위기 무엇?", "끝까지 재미있게 봤다" 등의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졌다.

이 영상은 '세상에 똑같은 배는 없다'라는 주제로, EP사업부문이 선박의 친환경 '추진' 솔루션을 제공하는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도 '추진'력 있게 행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추진력 있게 달려나가는 EP사업부문의 모습과 밝은 BGM이 겹치며 역동적인 팀 분위기를 즐겁게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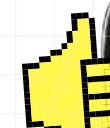
전장 시스템은 장비의 구동 및 제어, 안전성을 위해 탑재되는



▶ 'K-조선' 맞춤형 재단재 ▶



장비에도 생명이 있다



2편은 '장비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주제로 HD건설기계 전기전자개발 부서가 등장한다. 전장 부품, 계기판, 배선 시스템 등을 통해 꺼져 있는(OFF) 건설기계에도 생명(ON)을 불어넣는 부서로, 실제 업무 스타일 역시 'ON(일할 때)-OFF(휴대) 스위치'가 확실하다는 점을 유쾌하게 연출했다. 전기전자개발 부서의 유쾌한 일상을 담은 2편은 업로드 하루 만에 1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굴착기 하나 사고 싶어지는 영상이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숨 고른 울산 HD, 뜨거운 여름 승부 속 선두 탈환 노린다

울산 HD가 숨 가빴던 전반기를 마치고 올 시즌 승부처가 될 후반기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지난 5월 17일(일) 강원FC 원정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브레이크 휴식기에 돌입한 울산은 15라운드까지 8승 2무 5패를 기록하며 리그 2위에 자리했다. 치열했던 일정 속에서도 공격적인 운영과 끈질긴 승부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반기 대비 전지훈련 ... 더 강해진 울산

월드컵 기간에도 선수들의 담금질은 계속됐다. 먼저, 조현우와 이동경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월드컵을 통해 쌓은 경험과 자신감은 두 선수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하반기 울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힘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석현과 백인우 역시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되며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울산 HD FC 선수단은 지난 6월 중순 경북 영덕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이번 전지훈련은 단순한 '재정비'의 의미를 넘어 팀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 전반기 동안 울산이 보여준 공격 축구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동시에, 하반기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활용할 새로운 전술적 변화를 준비했다. 여름철 숨 가쁘게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다양한 전술 운영 능력은 하반기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반가운 얼굴도 돌아왔다. 지난해 리그 10득점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스트라이커 에릭의 복귀는 울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즌 야고, 말캉, 허울 등 공격수들의 부활에 힘입어 과감한 공격 축구를 보여준 울산이 더욱 많은 공격 옵션을 갖추게 되며,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에릭

7-8월 울산 HD FC 홈경기 일정

7월 21일(화) 19:30 vs 인천(홈)
8월 2일(일) 19:30 vs 안양(홈)
8월 16일(일) 19:30 vs 강원(홈)
8월 29일(토) 19:30 vs 김천(홈)

상위권 판도 흔들 뜨거운 여름 승부 기대

다가오는 여름 일정은 울산의 시즌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승부처다. 특히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결과를 남겼던 팀들과 두 번째 승부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다.

7월 11일(토) 홈에서 치르는 전북전을 시작으로, 대전(7/18)·서울(7/26)·포항(8/8)과의 경기까지 이어지며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 분위기를 되찾는 동시에 순위 경쟁에서도 우위에 선다는 각오다. 팬들 역시 '설욕전'이 될 여름 빅매치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울산은 하반기에도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반기 동안 큰 호응을 얻었던 팬 참여형 콘텐츠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축구 그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콜라보 프로그램, 홈경기 이벤트, MD상품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경기장을 찾는 재미를 더하고, 팬들과 선수단이 더욱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우리 아빠 최고야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HD아트센터 미술관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특별전 '앤서니 브라운전 -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개최한다.

수많은 명작 그림책을 통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앤서니 브라운은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어린이 그림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표작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중심으로 원화 및 작품 80여 점과 미디어아트, 교육 체험 콘텐츠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전시로 마련된다. 앤서니 브라운의 상상력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으며, 대표 그림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행복한 도서관'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부모들에게는 가족의 사랑과 소통의 의미를 전하는 문화예술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앤서니 브라운전 - 우리 아빠가 최고야'는 10월 11일까지 HD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여름방학 기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길 추천한다.

전시 개요

전 시 명 | 앤서니 브라운전 '우리 아빠 최고야'
일 정 | 6월 19일(금) ~ 10월 11일(일)
장 소 | HD아트센터 미술관
관람등급 | 10:00 ~ 19:00 (매주 월요일 휴관)
가격정보 | 일반 11,000원, 고등학생 이하 9,000원 (HD현대 직원 2,000원 할인)

정상급 클래식 연주자 공연



백건우



임윤찬



손민수



박수예

정상급 월드클래스 연주자 초청 릴레이 공연

HD아트센터가 하반기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 중인 클래식 연주자들을 초청해 품격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클래식 시리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비롯해 세계 클래식계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깊이 있는 음악성과 탁월한 해석으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손민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수예까지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진다.

먼저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에서는 한국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거장의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어 임윤찬은 2022년 세계적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며, 리사이틀을 갖는 손민수는 베토벤과 브람스 작품 해석으로 국내외 음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박수예는 한국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뛰어난 기량과 섬세한 음악성으로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각기 다른 개성과 음악 세계를 지닌 세계적 연주자들의 시리즈 무대를 HD아트센터에서 만나보자.

공연 일정

9월 15일(화) 백건우 리사이틀 | 10월 6일(화) 임윤찬 리사이틀 | 10월 23일(금) 손민수 리사이틀 | 12월 11일(금) 박수예 리사이틀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D아트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 1522-3331)

Samcheok

[三陟]

바다는 언제나 옳다, 투명 바다가 펼쳐지는 여름 삼척

바닥이 흰히 드러날 정도로 투명한 바다가 덧없이 펼쳐진다. 곳곳이 서 있는 기암괴석과 역동적인 파도 그리고 동해의 비경(祕境)은 찬란한 여름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뜨거운 여름, 몸과 마음에 시원함과 해방감을 채우고 싶다면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삼척으로 떠나보자.

글/사진. 여행 작가 불비(김혜민)

삼척에 불시착한 지중해 연안

생수통을 통째로 들이부은 듯한 색. 삼척 여름 여행의 백미를 꼽으라면 무조건 장호항이다. 한쪽에서는 투명 카약 위에 몸을 싣고, 또 다른 쪽에서는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이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친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굳이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다. 잠시 숨을 참고 얼굴을 물속에 담그면 물고기 떼가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해안을 따라 달리는 레일바이크도 좋지만, 여름 주말이면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여행이 불편하다면 조금 더 느슨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현장 예약이 가능한 '케이블카'다. 이동 거리 784m, 편도 7분의 빨간 케이블카는 장호해수욕장과 용화해수욕장 사이 해변을 천천히 가로지른다. 바다 위 배와 해변의 사람, 끊임 없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마치 여름을 타고 있는 기분이다.



60년 만에 개방된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해안길이 60년 만에 개방되었다. 구렁이가 용으로 승천했다는 전설이 깃든 초곡용굴은 '해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거대한 기암괴석 위를 올라가 보기도 하고, 출렁다리 위에서 몸을 흔드는 것도 좋다. 다리 중앙 부분은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파도치는 바다가 발 아래 펼쳐진다. 기암괴석이 줄지어 이어지는 길 끝에 결국 마주하게 되는 촛대바위. '후~' 하고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가느다란 모양인데,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대견하다. 물론 이곳은 '애국가 촛대바위'로 유명한 추암 촛대바위와는 다른 곳이지만, 그 주변에 거북바위, 사자바위, 용굴 등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펼쳐진다. 입장료도 무료라 가볍게 둘러보기 딱 좋은 곳이다.



출렁다리 중앙 부분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파도치는 바다가 발 아래로 펼쳐진다



인생샷 명소로 손꼽히는 덕봉산 탐방로

삼척에는 '바다 위 산'이라 불리는 덕봉산이 있다. 본래 군 경계 철책으로 막혀 있던 곳이었으나, 53년 만에 숨겨진 비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 주변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마치 섬처럼 보인다. 깊은 물은 아니지만 외나무다리를 건너 마주하게 되는 풍경이 꽤 인상적이다. 주 목적지는 인생샷 명소로 손꼽히는 '천국의 계단'. 우거진 대나무 숲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 끝에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껏 걸어온 길 너머로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다.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왜 이곳을 삼척의 숨은 절경이라 부르는지 단박에 이해하게 된다. 천천히 걸으며 삼척 바다를 눈에 담고 싶다면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관동팔경 중 유일한 국보, 죽서루

고려 시대 세워진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유일한 국보이자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손꼽힌다. 무심히 보면 평범한 정자 같지만, 총 17개의 기둥 중 9개는 자연 암반 위에 세워진 독특한 구조다.

건강한 여름나기 : 냉방기와 적당한 거리 유지

초여름의 더위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찾는다. 하지만 지나친 냉방은 오히려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 다양한 신체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쾌적함과 건강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올바른 냉방 습관이 필요한 이유다.

글. 서울아산병원



지나친 냉방이 부르는 '냉방병'

냉방병은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여름철 과도한 냉방 환경에서 흔히 겪는 여러 신체 증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실내·외 온도 차가 크거나 습도가 낮을 때 두통, 근육통, 권태감, 소화불량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온도 차가 5℃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체온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서 다양한 불편 증상이 발생한다. 또한 장시간 냉방 환경에 노출되면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외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감기와 유사한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즉, 냉방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체 전반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냉방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냉방병 예방의 핵심은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는 것이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인 24~27℃를 유지하고, 외부 기온과의 차이를 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체가 무리 없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이다.

더불어 주기적인 환기는 필수적이다.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문을 장시간 닫아두면 실내에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가구나 건축 자재,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실내 공기 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하거나, 환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냉방기 관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부 필터나 냉각수에 번식한 세균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점검과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찬 음식과 음료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병행하면 면역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증상 발생 시 대처와 주의사항

냉방병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 온도를 조금 높이고,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의 증상은 비교적 빠르게 완화된다. 이 방법은 약물 치료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 두통이나 근육통 등 개별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대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냉방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핵심이다.

특히 38℃ 이상의 고열, 지속적인 기침, 심한 근육통이 동반될 경우에는 단순 냉방병이 아닌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냉방병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건강 이상 신호를 구분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냉방기 사용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편안함과 건강을 더해줄 것이다.**



마음을 치유하는 여름,

외상 후 성장 이야기

rest

바쁜 일상 속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때때로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을 넘어,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기돌봄입니다.

글. 송은미 실장(HD현대중공업 마음정원)



치유의 시작은 고통을 마주할 때

"A씨는 유년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대인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직장 업무 속에서도 동료들과의 갈등을 미숙하게 대처하다 결국 퇴사까지 고려했습니다. 특히 자신마저도 본인의 편이 아니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가 있습니다. 큰 외상(Trauma)을 갖고 있었지만, 상담을 거듭할수록 지나온 환경과 삶을 수용하면서 A씨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상담자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정서와 인지 그리고 행동을 똑바로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사건은 오랜 세월 심리적 불편함을 유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느낌, 타인과의 관계, 인생철학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발전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지를 통해 성장 발판 마련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이론에 의하면, 삶의 무거운 고통을 만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정서

와 어려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 상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강점과 취약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등 본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주변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친밀감 등 정서적인 표현을 늘려가며 긍정적인 정서와 친사회적인 행동 속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며 감사함을 느끼는 영역에서 '외상 후 성장'은 일어납니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여름

고통과 스트레스는 우리를 습격하고 집어삼키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혹은 친근한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파도는 무섭지 않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고통이 오더라도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당하지 않고 성숙하게 아픔과 경험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보기 위해 쉼과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올 여름, 일과 삶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나 푸르른 산과 시원한 바다에서 진정한 휴식을 즐기시길 추천합니다.

제로클릭: AI가 대신 내려주는 결정

최근 쇼핑과 검색 플랫폼은 소비자가 무언가를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하며 고객의 클릭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디지털 생활 전반에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이를 '제로클릭(Zero-Click)'이라 한다.

참고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6』



소비 패러다임의 대변화

당신은 요즘 인공지능(AI)을 얼마나 사용하는가? 챗GPT나 제미니(Gemini) 등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앱을 통해 쇼핑하거나 혹은 동영상 시청한다면 이미 AI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클릭'을 하나라도 줄여주는 일이다. 인공지능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구매 의사결정은 '인지→탐색→비교→선택→구매'라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이 생기면(인지), 포털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탐색), 수많은 상품 정보, 후기, 가격 비교 사이트를 오간 후(비교), 최적의 대안을 고르고(선택), 결제 버튼을 눌렀다(구매). 즉,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가는' 구조였다.

반면, 인공지능 시대의 쇼핑에서는 AI가 추천한 상품을 소비자가 바로 구매한다. '인지'와 '구매' 사이에 있던 '탐색, 비교, 선택' 단계가 증발한 것이다. 소비자가 필요를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혹은 느끼기 직전에 AI가 최적의 대안 하나를 눈앞에 제시하는 소비로 변모했다. 이는 단순히 클릭 몇 번을 줄여주는 차원의 효율성 개선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정의하고, 찾아다니는 모든 과정을 AI 기술이 대신한 소비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다. 제로클릭은 우리의 삶에 큰 편리를 가져다주었지만, 그만큼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기술이 만든 선택 없는 선택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권을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QUIZ

당신의 사보 이해도는 몇 점?

가볍게 풀지만, 은근히 중요한 문제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1. 다음 중 지난 6월 HD현대가 참가한
조선·해양 국제 전시회는?

- ①노르시핑
- ②가스텍
- ③포시도니아
- ④SMM

2. HD현대일렉트릭 OO 배전캠퍼스는
생산과 물류가 하나로 연결된 스마트 제조 공장이다.

- ①충주
- ②전주
- ③경주
- ④청주

3. HD현대 유튜브 채널의 'HD팁터뷰'는 요즘 유행하는 OO 형식에서 착안한 2분 이내의 짧은 콘텐츠다.

- ①텍스트
- ②롱폼
- ③릴스
- ④애니메이션

※ 만점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지급 예정

지난 호 정답

- ①HD해파워크
- ②콘엑스포
- ③오일전사

퀴즈 응모 방법

퀴즈 정답을 7월 31일(금)까지 QR코드(또는 하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rquXLWPbS43bXEgL6>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복합 퀴즈 당첨자

치킨 기프티콘(2만원 상당)

김수아 HD현대중공업 안전진단부
이해균 HD건설기계 중형조립팀
조영일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디지털혁신부
한태일 HD현대사이트솔루션 해외영업2팀
민병용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품질경영부
윤영중 HD현대상호 선행도장부
박세욱 HD현대중공업 PM기획/지원과
장삼선 영풍기공(주)
민경식 HD현대에너지솔루션 생산기획팀
윤승민 HD현대이엔티 현중품질검사부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

강차련 HD현대상호 전장설계부
박다련 HD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설계부
방은재 HD현대중공업 해양자재운영부
장동욱 HD건설기계 DL시운전팀
권도형 HD현대중공업 안전보건지원부
윤기원 HD현대상호 내부회계팀
유선희 에이치엔아이엑스
김승일 HD현대이엔티 조선사외품질검사부
김영만 HD현대중공업 중형선선행의장부
김민재 HD한국조선해양 HSE전략팀

이승호 HD현대사이트솔루션 인증규제팀
박용득 HD현대상호 도장1부
김홍규 HD현대이엔티 현중품질검사부
정승엽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김준수 HD현대중공업 대형엔진시운전2부
김종국 (주)창민기업
김연지 HD건설기계 소형엔진시험팀
석채린 HD현대중공업 중형선방식솔루션부
김어진 HD건설기계 생산관리팀
박동규 HD현대상호 의장2부